

연합뉴스  
특파원이  
전하는  
세계는 지금



사진 / 스페이스X 제공

## “화성 여행 비용은 5억원쯤, 돌아올 땐 무료”

글 옥철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달 탐사 유인우주선 '스타십'(Starship) 엔진 시험을 시작한 가운데 머스크가 달을 넘어 궁극적 목표인 화성 여행을 하는 데는 5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스페이스X 캐스트로부터 '달·화성 여행용 로켓의 재활용 적정 수치를 맞추려면 (여행) 티켓 추정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머스크는 답변에서 "그건 전적으로 불룸(여행객 규모)에 달려지만, 난 화성까지 가는데 비용이 50만달러(5억6천여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괄호 안에 "돌아오는 티켓은 무료"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어 "선진 경제에 있는 많은 사람이

지구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화성으로 이주한다면 티켓 가격은 엄청나게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IT매체 시넷(Cnet)은 머스크가 10만달러 미만까지 가격이 내려갈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머스크가 밝힌 스페이스X의 화성 여행 비용은 다른 민간 우주개발 기업인 버진 갤럭틱의 무중력 우주체험 비용이 20만달러, 우주정거장까지 다녀오는 비용이 950만달러로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무척 싼 편이라고 시넷은 평했다.

이 매체는 머스크의 트윗에서 가장 재밌는 대목은 '돌아오는 티켓은 공짜'라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화성에서 '감자 먹기'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화성 탐사를 다룬 영화 '마션'에서 조난한 우주인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가 화성에서 식량으로 감자를 키워 생존하는 장면을 빚댄 것이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또는 화성 여행 프로젝트는 아직 일정표조차 나오지 못한 상태다. 화성까지 여행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미지수다.

스페이스X 유인우주선 스타십은 오는 2023년 최초의 민간 달 탐사 프로젝트를 시도하겠다는 대강의 일정만 나온 상태다.

## 펜싱 종주국 프랑스, 스타워즈 '광선검' 정식종목 채택

글 김용래 파리 특파원



AP-연합뉴스

펜싱의 종주국인 프랑스의 펜싱연맹이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광선검을 정식종목으로 인정했다.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을 펜싱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스타워즈의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프랑스 펜싱협회는 광선검(라이트세이버) 대결을 에페, 사브르 등과 마찬가지로 펜싱 경기종목으로 채택했다.

광선검 종목 역시 다른 펜싱 경기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는데, 광선검이 잘 보이게끔 조명을 낮춘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의 머리를 광선검으로 가격하면 5점, 다리는 3점, 손은 1점이 주어지며, 15점을 먼저 따

는 사람이 이긴다.

프랑스 펜싱연맹의 세르주 오비 사무총장은 "요즘 청년들은 진짜 운동은 안 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손가락 운동만 한다"면서 "과거 검술을 다룬 영화가 펜싱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광선검 영화들도 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펜싱을 20년간 수련해온 경찰관 필리프 봉디(49) 씨는 최근 광선검 대결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그가 훈련하는 프랑스 동부 메츠의 펜싱클럽이 정식으로 광선검 종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영화 스타워즈의 열혈팬이었던 그는 광선검의 매력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보호장구와 광선검 구매에 최근 350유로(50만 원 상당)를 투자하기도 했다.

그가 고른 광선검 색깔은 영화에서 은하계의 평화를 지키는 조직 '제다이'가 주로 사용하는 색깔인 녹색이다.

봉디 씨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제다이의 색을 택한 이유로 "법을 수호하는 내 직업상 나는 착한 사람들 편에 서야 한다"면서 웃었다.

프랑스 펜싱협회는 최근 파리 근교에서 34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전국 광선검 토너먼트 대회를 열기도 했다.

스타워즈 팬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화 속 캐릭터들의 의상을 입고 대거 응원을 나와 마치 스타워즈 새 시리즈 개봉 전의 시사회장과 같은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제펜싱연맹(FIE)도 광선검 종목 승인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FIE 사무국의 세르주 티마세프는 AP통신의 질문에 "우리는 검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펜싱연맹의 (광선검) 종목 채택과 그 전개 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뉴욕현대미술관, 6~10월 문 닫는다

글 이준서 뉴욕 특파원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명소인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오는 6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미술관 확장 공사를 위해 4개월 남짓 문을 닫는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뉴욕현대미술관은 뉴욕의 필수 관광코스라 꼽히는 곳이다. 이 확장 공사로 미술관은 총 4만 스퀘어피트(약 1천120평) 넓어지게 된다. 소장작품들을 대대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미술관 측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9개월마다 전시작품들을 새롭게 배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등 대표적인 소장작

품들은 그대로 전시되겠지만 전시공간이 확장되는 만큼 새로운 작품들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이 비중 있게 전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컬렉션들은 여성과 리타노(히스패닉계), 아시아,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등의 작품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름철 관광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80여년간 고수된 전시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 국유재산 된 히틀러 생가 전 소유자 19억원 보상받아

글 이광철 제네바 특파원

오스트리아 정부가 히틀러 생가의 전 소유자에게 150만유로(19억2천만원)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북부 브라우нау암인에 있는 히틀러 생가가 네오나치 추종자들의 기념 장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2년부터 건물을 임대해 장애인 복지시설, 세미나 공간 등으로 활용해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1년 3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하려 했으나 집주인이었던 게를린데 포머(68)가 반대하면서 임대 계약이 끝났고 건물은

수년 동안 세입자 없이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 몇 차례 매입 시도를 했던 정부는 포머가 계속 팔기를 거부하자 2016년 건물을 강제매입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소유권을 가져왔다. 포머는 강제 매입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세력의 범죄 행위를 막을 의무가 국가에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소유권 이전 보상금액으로 30만유로(3억8천만원)를 제시하자 포머는 150만유로 이상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변호인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리트임인크라이스 법원은 히틀러 생가의 가치를 150만유로로 산정했다. 변호인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포머가 합리적인 금액에 만족하고 있지만,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사례들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히틀러 생가를 철거하거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바사리 회랑, 내후년 재개방”

글 현윤경 로마 특파원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품들을 다수 보유한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박물관과 피티 궁전을 잇는 '바사리 회랑'(Corridoio Vasariano)이 내후년 대중에게 재개방된다.

에이크 슈미트 우피치 미술관장은 "향후 18개월 동안 1천만유로를 투입해 바사리 회랑을 보수한 뒤 2021년에 일반에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베키오 다리를 거쳐 아르노강 건너 피티 궁전까지 연결하는 길이 1km에 달하는 이 회랑은 수백 점의 진귀한 르네상스 시대의 초상화를 소장하고 있는 공간으로 유명하다. 바사리 회랑은 안전을 이유로 2016년에 일반 관람객의 접근이 금지됐다. 슈미트 관장은 바사리 회랑이 재개방되면 연간 50만 명의 관람객을 모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피치 미술관은 앞서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도난당한 18세기 네덜란드 화가 얀 판 하위섬의 유명한 정물화 '화병'을 되찾는 것을 도와 달라고 독일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가로 47cm, 세로 35cm의 유화로,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에 나치 병사들이 훔쳐 간 뒤 독일로 이송됐다.

독일 통일이 이뤄진 1991년까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던 이 작품은 현재 한 독일 기문의 수중에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



구하고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다.

독일 국적의 미술사학자인 슈미트 관장은 "독일은 이 작품을 우피치에 돌려줄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이 그림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2차 대전과 나치가 저지른 만행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이 작품의 소재가 드러난 뒤로는 여러 명의 중개인이 이탈리아 정부에 연락해 반환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피치 미술관은 이와 관련해 "해당 그림은 이탈리아 정부가 소장한 작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 피렌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기후변화 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16)가 브뤼셀 유럽연합(EU) 회의 연설에서 기후변화 해결에 실패한 정치인들은 전 세계를 재앙에 이르게 한 "역대 최고 악당들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장클로드 웅커 EU 집행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파리기후협정에 EU가 제대로 기여하려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1990년 수준에서) 8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EU가 추진하는 계획보다 약 2배 더 야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툰베리는 지난해 8월부터 매주 금요일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의회 앞에서 정부가 기후변화에 맞선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도 각 나라 정부와 정치권에 기후변화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 툰베리의 영향을 받아 지난 6개월간 브뤼셀을 비롯해 시드니, 베를린, 헤이그, 런던 등 전 세계 도시에서 수만 명의 고등학생이 기후변화 시위를 벌여왔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EU 28개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1990년 수준에서 40% 감축하기로 서약했으며, EU 관리들은 이를 45% 감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툰베리는 또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IPCC)이 지구의 기온이 3~4도 상승하는 쪽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인 대혼란을 피하기 위해 선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아직 10년의 시간이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성취와 진전은 수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지도자들의 업적은 인류역사상 가장 큰 실패작이 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악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연설을 끝냈다.

툰베리는 연설을 마친 뒤 브뤼셀에서 고등학생을 주축으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 동참해 시위를 벌였다.

# 고교생 기후변화 휴업 촉발한 스웨덴 학생 EU서 연설

글 브뤼셀 김병수 특파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내년 7월 열리는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 올림픽의 오륜을 뜻하는 한자인 '고린'(五輪)을 상표로 등록했다. IOC는 일본 기업들이 무단으로 올림픽 마케팅에 편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재작년 12월 '고린' 상표 등록을 출원해 지난 2월 등록을 끝냈다.

IOC와의 계약에 따라 현재 일본에서 '고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약 900개다. 대회조직위는 '고린' 브랜드를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사례별로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IOC는 일본 글자 표기인 '올림픽쿠'(オリンピック)와 로마자 표기인 '올림픽'(OLYMPIC)도 상표 등록을 마쳤다.

IOC 관계자는 "일본 내에서의 앰부시 마케팅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대회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해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복 마케팅이라고도 하는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후원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이 TV 광고나 개별 선수 후원을 통해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한다.

## IOC, 일본서 '오륜' 상표 등록 무단사용 금지

글 박세진 도쿄 특파원

## '패션황제' 라거펠트의 2억달러 유산, 반려묘 '슈페트'에게 갈까

글 성혜미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가 2월 19일 타계하면서 그의 유산 2억달러(2천247억원)의 행방이 관심이다. 특히 그가 딸처럼 아낀 고양이 '슈페트'(Choupette)가 유산을 일부나마 상속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라거펠트는 생전 프랑스TV에 출연해 "슈페트는 부유한 아이"라며 "그(슈페트)는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혀 유서에 고양이 몫의 유산을 별도로 남겼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슈페트가 라거펠트와 독일 자동차 회사

오펠의 달력을 제작하고, 일본 화장품 슈에무라와 협업해 '슈페트'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출시해 벌어들인 돈만 해도 최소 340만달러(38억원)로 추산된다고 AFP는 전했다.

또 라거펠트는 숨지기 훨씬 전 "슈페트는 전속 경호원 그리고 두 명의 하녀와 함께 익숙해진 스타일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산은 전했다.

2014년에는 '슈페트: 성공한 고양이의 사생활'이란 제목의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프랑스법을 따르면 고양이에게 유산을 남길 수 없다. 라거펠트는 과거 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프랑스인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답했고, 슈페트에게 남기는 유산은 신탁에 맡겨질 것으로 추정됐다.

라거펠트는 2011년 8월에 태어난 암컷 고양이 슈페트를 모델 밥티스트 지아비코니로부터 납치 하듯이 데려와 애지중지 키웠다. 슈페트는 패션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고양이로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가 수십만명에 이른다.

슈페트의 전속 하녀들은 라거펠트가 볼 수 있도록 슈페트의 모든 일상을 업무일지에 기록했다. 슈페트는 은 식기에 담긴 음식을 테이블 위에 차려줘야 먹고, 특히 키크랩과 훈제연어, 캐비어를 섞은 음식을 좋아한다.

슈페트는 '미식가'로 소문나 있지만, 라거펠트는 슈페트가 고양이 사료 광고에 출연하기에는 너무 세련됐다고 출연을 허락하지 않았다.

라거펠트는 슈페트에 대해 "사람 같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 "슈페트는 내 세상의 중심이다", "슈페트의 우아함과 태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했다.

유산상속에 있어서 슈페트의 가장 큰 라이벌은 모델 브랜드 크로닉의 아들 허드슨 크로닉(10)이 꼽힌다.

허드슨은 라거펠트의 대자(代子)이며, 샤넬 패션쇼 피날레에 라거펠트의 손을 잡고 자주 등장했다. 라거펠트는 크로닉 부자에 대해 평소 "내가 족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①

